

베네수엘라 선수생활 접고 KIA 코치로 돌아온 앤서니

“한국서 제 2인생 신나...즐기는 야구 해보자”



KIA 타이거즈의 앤서니 코치(왼쪽에서 두 번째)가 합평 챔피언스필드에서 어깨 강화 운동 시범을 보이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코칭스태프 대대적 개편...타이거즈 출신 외국인 선수 첫 영입 “연탄불고기·열무국수 그리웠다...두달 뒤 아이들도 한국서 생활”

앤서니 르루 육성군 코치의 ‘유패한 에너지’가 KIA 타이거즈에 더해졌다.

KIA는 올 시즌을 앞두고 대폭적으로 코칭 스태프 개편을 했다. 타이거즈 출신 외국인 선수의 코칭 영입이라는 첫 시도도 이뤄졌다. 그 주인공은 바로 유패한 모습으로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앤서니다.

선수에서 지도자로 변신한 앤서니 코치는 지난 22일 합평 챔피언스필드에 합류해 KIA 복귀를 신고했다.

특유의 밝은 표정과 에너지는 여전하다. 하지만 훈련을 진행할 때는 진지한 표정으로 시범을 보이고, 어린 선수들의 이야기도 귀담아듣는다.

앤서니 코치는 “기분이 좋다. 선수들이 환영해주고 선수들 모두 열성적으로 훈련에 임하고 존중해준다. 너무 좋고, 고맙다”고 복귀 소감을 밝혔다.

베네수엘라 원터리그를 뛰고 있었던 앤서니 코치는 제2의 인생을 앞두고 잠시 고민도 했다. 하지만 다시 없을 기회라는 생각에 그는 기꺼이 한

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앤서니 코치는 “처음 코치 제안을 받고 정말 기뻐했다. 하지만 계속 운동을 해보고 싶었다. 현역으로 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며 “나이가 있고 나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다시 그라운드에서 뛰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한 앤서니 코치는 벌써 한국 적응을 마쳤다.

합평 챔피언스필드에 합류하자마자 앤서니 코치는 ‘열무국수’를 찾기도 했다.

“맛있어요”라며 웃음을 터트린 앤서니 코치는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도시도 깨끗하고 좋은데 한국의 식당이 가장 그리웠다”고 연탄 불고기, 열무 국수 등을 언급했다.

여전한 한국의 맛에 엄지손가락을 치켜 든 앤서니 코치는 달리진 경기장에 대해서는 놀라움을 표했다.

앤서니 코치는 “챔피언스필드를 봤는데 정말 좋았다. 나는 예전 무등경기장에서 뛰었는데, 당

시에도 새로운 야구에 신나있었다. 새로 들어온 외국인 선수들이 챔피언스필드를 보고 얼마나 신나는지, 그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타국의 생활에 대한 적응은 완료했지만, 코치로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끊임없이 노력할 생각이다.

앤서니 코치는 “아이들이 이곳에 있을 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금 애들이 많이 컸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할 것이다. 기대된다. 학교 문제도 있고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한국에 올 것이다”며 “내가 이곳에서 훈련 시스템도 적응하고 내일에 집중할 뒤 가족들을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또 “(선수 시절과) 똑같이 하겠다. 목표는 즐겁게 하는 것이다. 선수들이 즐기면서 하다 보면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 훈련하러 오는 것을 즐기도록 하겠다. 즐기면서 하다보면 더 잘 될 것이다”며 “밸런스와 어깨 관리에 대해 집중하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또 정신력이 중요하다.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것이 중요하다. 나도 경험했던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합평=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베이징 영광 다시 한번”

김경문, 야구 국가대표팀 새 사령탑
프리미어 12·내년 도쿄올림픽 지휘



김경문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대표 감독 선임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문 전 NC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베이징 영광 재현’에 나선다.

KBO와 KBSA가 28일 신임 야구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김경문 전 NC 감독을 선임했다.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9전 전승 행진 속에 한국 남자 구기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이끌었던 김 감독은 11년 만에 다시 국가대표팀 감독 자리에 오르게 됐다.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선수로 KBO리그에 첫발을 내디딘 김 감독은 2004년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두산 베이스의 감독으로 활약했다. 2012년 NC 다이노스의 초대 감독으로 취임한 뒤 지난 시즌 중반까지 구단 감독을 역임했다.

특히 2007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와 올림픽 최종예선에 이어 지휘봉을 잡았던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9전 전승으로 한국 야구를 넘어 한국 남자 구기 종목 대표팀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김 감독은 28일 서울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대표 감독 선임 기자회견에서 “11년 만에 국가대표 감독으로 다시 인사를 드린다. 프리미어 12, 도쿄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를 앞두고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더욱더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가대표팀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이자 열굴이다. 11년 전 베이징 올림픽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야구팬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지, 응원이 필요하다. 11년 전 여름 밤에 느꼈던 짜릿한 전율을 다시 느끼고, 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KBO 리그의 풍부한 경험과 국제대회 우승 경력을 바탕으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복귀한 김 감독은 오는 11월 열리는 2019 WBSC 프리미어 12 대회를 시작으로 그라운드에 다시 선다.

한국이 본선 진출권을 획득하면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전임 사령탑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감독은 2월 일본, 미국 등 KBO 리그 10개 구단의 전지훈련지를 방문해 선수들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각 팀 감독들과 직접 만나 선수들의 대표팀 차출에 대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어 3월 중으로 기술위원회와 협의해 코칭스태프와 전력분석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대표팀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강정호 “올해 재기상 받고 싶다”

美 일간지와 인터뷰...감독 “열린 마음으로 지켜볼 것”

강정호(32·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2년 4개월 만에 PNC파크에 섰다.

피츠버그는 2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2019년 팬 페스트를 열었다.

미국 일간지 피츠버그 트리뷴 리뷰는 “강정호가 2년 반 만에 PNC파크에 왔고 13분 동안 미디어와 인터뷰를 했다”며 피츠버그 홈구장에 선 강정호에 주목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3경기를 치렀지만, 모두 원정 경기였다.

그는 2016년 9월 30일 시카고 컵스와 홈 경기를 치른 뒤 PNC파크를 밟지 못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과거 음주 운전 경력까지 드러났다. 이후 미국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2017시즌을 통째로 쉬었다. 2018년 극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강정호는 빅리그 재입성을 준비하던 중 8월 4일 왼쪽 손목의 과사한 연골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피츠버그는 강정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고, 시즌 막판 그를 빅리그로 불러올 뻔했다. 강정호는 3경기에서 6타수 2안타를 쳤다.

시즌 종료 뒤 피츠버그는 강정호와 1년 최대 550만 달러에 계약했다. 보장 금액 300만 달러, 보너스 250만 달러(약 27억9000만원)다.

클린트 허틀 피츠버그 감독은 “강정호가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열린 마음으로 강정호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강정호는 ‘재기 선수상’이 화두에 오르자 “꼭 받고 싶다”는 의미로 “오, 예, 예, 예(Oh, yeah, yeah, yeah)”라고 답하며 웃었다. /연합뉴스

‘키움’ 조상우·박동원, 성폭행 무혐의

검찰, 증거 불충분 불기소...KBO, 상벌위 열어 복귀 여부 등 결정키로

KBO가 조상우(25), 박동원(29·이상 키움 히어로즈)의 상벌위원회를 다시 연다.

둘의 KBO리그 복귀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회의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28일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중간간 혐의를 받은 조상우와 박동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둘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5월 KBO는 조상우와 박동원에게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성폭행 혐의를 무혐의로 결론 내려 KBO도 징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KBO 관계자는 “키움 구단으로부터 정식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두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적인 문제가 사라진다고 해도, 야구계에서도

조상우와 박동원에게 모든 부문에서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문제가 불거진 장소가 선수단 숙소라는 점, 프로선수의 품위를 손상한 점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KBO가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릴 때도 ‘품위 손상’이 징계의 이유 중 하나였다.

다만 두 선수가 5개월 가까이 KBO리그에서 뛰지 못한 기간을 ‘출진 정지 기간’으로 소급 적용한다면 조상우와 박동원의 그라운드 복귀 시점은 당겨질 수 있다.

키움 구단은 아직 조심스럽다.

조상우와 박동원은 각각 마무리와 주전 포수로, 구단의 핵심 자원이었다. 당연히 둘의 복귀는 전력 상승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구단 이미지’를 생각하면 빠른 복귀를 주장할 수도 없다.

구단 관계자는 “KBO의 결정에 따라 구단 활동 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일단 스프링캠프 합류는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